

##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임 경 회\*\*

### [국문초록]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비서구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강력한 군국주의에 기반한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군국주의에 저항했던 톨스토이의 사상은 특히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양국의 혁명가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는 톨스토이 사상에 심각한 모순을 느끼고 대치하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무정부주의로 향한 고토쿠 슈스이 등과, 톨스토이를 발판으로 삼아 레닌주의를 심화시켜 갔던 레닌이 있다. 고토쿠 등은 일본의 초창기 사회주의운동을 대표했고, 레닌은 소련사회에 톨스토이를 기념하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국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전유 방식의 전형을 읽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시대에 전개된 레닌의 톨스토이 비판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주제어: 톨스토이, 러일전쟁, 1905년 러시아혁명, 고토쿠 슈스이, 레닌, 비전론, 무저항주의

Tolstoy, Russo-Japanese War, The 1905 Russian Revolution, Kōtoku Shūsui, Lenin, antiwar argument, non-resistance

사회주의운동 초기 일본에서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에 기초한 친 사회주의적 주장은 합법 정당을 추구했던 사회당 이미지 구축에 유효했다. 이들은 비전론을 주장하면서 톨스토이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러일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비판이 일본에 소개되자, 그들은 개인적인 종교성의 회복에 기초한 사회의 근본 개조를 주장하는 톨스토이의 주장이 사회체제의 변혁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에는 심각한 한계를 지녔다고 보았다. 이 인식은 레닌에게도 보였다. 또한 러시아혁명을 거친 후로는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졌다. 이것은 고토쿠 그룹이 혁명을 경험하면서 무정부공산주의와 직접행동으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는 흐름과 연동되어 있었다. 레닌도 러시아혁명 패배의 최대 원인을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에서 찾았다. 그러면서도, 톨스토이의 사상에는 전형적인 농민혁명가로서의 부정적인 면과 함께, 착취 없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조하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후자에서 톨스토이의 역사적 의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역사건으로 혁명가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가해져 톨스토이주의의 급진적인 부분의 수용도 종언을 고했다.

## 1. 사상의 디딤돌로서의 톨스토이

김산과 님 웨일즈의 저서 『아리랑』<sup>1)</sup>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인 혁명가 장지락(1905~1938)이 한때 톨스토이주의에 심취했던 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장지락은 3·1독립운동 직후에 중국에 건너가 마르크스나 레닌의 저작들을 학습한 후 공산주의자가 되어,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과 조선민족해방전선의 구축을 결부시키고자 진력했지만, 이윽고 ‘트로츠키 분자’, ‘일본의 특무’ 등의 혐의로 처형된 비운의 혁명

1) Kim San & Nym Wales (1941), *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인용은 님 웨일즈·김산(2005), 송영인 옮김, 『아리랑: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개정3판), 동녘.

가이다. 그런데 그가 실은 중학교 시절부터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의 저작들을 읽기 시작해 공산주의자가 되고 나서도 “톨스토이 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거의 매일같이 읽었”던 것이다.<sup>2)</sup> 그중에서도 특히 『인생 독본』을 가장 좋아했는데, 춘추사(春秋社)에서 간행된 4권짜리 문고본<sup>3)</sup>은 항상 품에 지니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한다.<sup>4)</sup>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이러한 사상 편력은 독특한 것이 아니며, “극동의 현대 사상가나 작가 중에서 한때 톨스토이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해, 당시의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톨스토이주의는 어떤 것으로든 발전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사유의 모든 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것이다. 그의 철학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디딤돌이기도 했고, 헤겔 변증법으로, 또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디딤돌이기도 했다”<sup>6)</sup>고 하여, 톨스토이주의를 발판으로 해서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분기해 나아가는, 혁명 사상의 두 가지 경로를 지적하고 있다. 장지락의 경우는 후자의 경로를 걸은 혁명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옛날 선생님을 좋아하듯이”<sup>7)</sup> 톨스토이를 손에서 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가졌던 다양한 모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반복하면서도, 그 타당한 평가와 계승은 무산 계급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던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이나, 1928년에 톨스토이 탄생 백년 기념제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93권에 이르는 톨스토이 저작집을 국가사업으로 완성<sup>8)</sup>한 소련 사회의

2) 님 웨일즈·김산(2005), p. 196.

3) 톨스토이(1933), 八住利雄 역, 『人生読本』 1~4, 春秋社.

4) 님 웨일즈·김산(2005), p. 198.

5) 님 웨일즈·김산(2005), p. 196.

6) 님 웨일즈·김산(2005), p. 196.

7) 님 웨일즈·김산(2005), p. 196.

톨스토이 수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력히 추진했던 비서구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강력한 군국주의에 기반한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회모순을 봉합하고자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근대국가와 군사주의에 저항했던 톨스토이의 사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의 혁명가들에게도 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되어 갔다. 그런데 그중에는 톨스토이 사상에 심각한 모순을 느끼고 대치하면서 스스로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장지락이 간파했던 톨스토이를 디딤돌로 하여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더욱더 심화시켜 갔던 사상 경로의 두 가지 조류는, 실은 러일전쟁과 1905년 러시아 혁명 시기의 혁명가들에 의해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당시 톨스토이는 언론을 통해 전쟁이나 혁명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야기한 후에 이윽고 사상의 분기를 촉발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당시 톨스토이주의를 디딤돌로 삼아 무정부주의로 향하고 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톨스토이주의를 비판하면서 레닌주의를 더욱더 명확히 해 갔던 레닌 등의 두 가지 조류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은 톨스토이주의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의 혁명사상을 성숙시켰던 계기가 톨스토이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의식했던 형적도 거의 없다.<sup>9)</sup>

8) A・ルナチャーンスキイ(1928), 『톨스토이記念祭とその意義』, 『マルクス主義者の見たトルストイ』, 叢文閣, pp. 117-118.

9) 『平民新聞』 제27호(1904년 5월 15일)에 번역 게재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격문」(露国社会民主党の檄文)이 당시 멘셰비키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당 기관지 『이스크라』 제61호(1904년 3월 18일)에 실린 레닌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에게」였던 것은 판명되어 있다. 격문은 “전쟁에 반대하여 항의한 일본사회민주당 만세!”라는

하지만, 러일전쟁 기간을 통해서 반전 평화 운동의 담당자였던 톨스토이에 주목하고 연대하면서도, 이윽고 혁명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상의 계단 중 하나로 여겼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러일전쟁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러시아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톨스토이와 대치하고 있었던 레닌 등과, 강권적인 국민 통합에 의한 군사국가 체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갖추어 갔던 전승 후의 일본을 살았던 고토쿠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과는, 톨스토이를 발판으로 삼아 구체화시킨 혁명사상도 명확히 다른 모습을 띠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고토쿠 등은 일본의 초창기 사회주의운동을 대표했고, 레닌은 소련사회가 국가적으로 톨스토이를 기념하는 근거를 제공했다<sup>10)</sup>는 점에서, 일본과 러시아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전유 방식의 전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시대에 전개된 레닌의 톨스토이 비판<sup>11)</sup>을 염두에 두면서, 톨스토이와 일본의 초기 사회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주로 『평민신문』(平民新聞, 1903년 11월~1905년 1월)과 그 후속 잡지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들은 톨스토이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한 후 그것을 극복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갔을까.

---

언급이 있어, 고토쿠 그룹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平民新聞』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지 ‘러시아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이 배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 레닌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다. 飛鳥井雅道(1967), 『ロシア第一次革命と幸徳秋水』, 『思想』 520 참조.

10) ア・ルナチャーンスキイ(1928), p. 115.

11) 본고에서는 레닌이 톨스토이에 관해서 논한 두 편의 글을 대상으로 한다. ①В.И. Ленин (1908), Лев Толстой как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Пролетарий*, No. 35; ②В.И. Ленин (1910), Л.Н. Толстой, *Социал-Демократ*, No. 18. 각각의 인용은 ①레닌(1928), 『ロシア革命の鏡としてのレフ・トルストイ』, 国際文化研究会 訳, 『マルクス主義者の見たトルストイ』, 叢文閣; ②ニコライ・レーニン(1928), 『トルストイ論』, 『文芸戦線』 第5卷 第8号에 의한다.

## 2. 평민사의 톨스토이주의 수용 초기—<sup>톨스토이</sup>幸徳秋水?

유명한 러시아문학 연구자 야나기 도미코(柳富子)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메이지(明治) 시대에 일본으로 유입된 러시아 작가 중에서 “문학, 종교사상, 사회운동 등의 분야에 걸친 영향의 깊이, 시야의 넓이라는 측면에서” 톨스토이만큼 격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가는 없었다.<sup>12)</sup> 일본에서 톨스토이 소개의 시초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의 초역인 『泣花怨柳 北歐血戰余塵』(肌香夢史戲譯, 忠愛社)이 간행된 것은 1886년인데,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부터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톨스토이 수용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1901년에 사회민주당 결성에 참가했던 ‘일본 사회주의의 아버지’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1865~1949)는 『톨스토이 백작의 종교』(トルストイ伯の宗教, 1895)에서 톨스토이의 『나의 종교』(What I Believe)를 소개하면서 “그는 사해형제(四海兄弟)의 대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악에 적대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교훈과 ‘적을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교훈을 씨실과 날실로 삼아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준열한 신종교—아니 기독교 설교의 새로운 설명—를 요구하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악에 적대하지 말라’는 교훈을 엄수하기 때문에 절대적 비전론을 주창한다. 그는 ‘적을 사랑하라’는 교훈 속에 인류적 계급적 구별을 박멸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믿기에, 또한 계급적인 구별은 대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관리와 비관리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기에, 그는 열심히 노동의 필요를 설파하고 인민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크게 기쁨을 토했다”<sup>13)</sup>고 하여, 절대평화주의, 계급 철폐, 노동주의와 같은 톨스토이 사상의 급진적

12) 柳富子(1998), 『トルストイと日本』, 早稲田大学出版部, p. 3.

13) 安部磯雄(1895), 『トルストイ伯の宗教』; 柳富子(1998), p. 18에서 재인용.

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민우사(民友社)의 ‘12문호’ 시리즈로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 1868~1927)가 집필한 일본 최초의 『톨스토이』(トルストイ, 1897) 전기에도, 예를 들면 “조세는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정부 따위는 없어도 되는 것이다, 전쟁은 대죄악이므로 병역에 복무할 의무는 없다, 토지는 공유로 해야 하는 것, 사해가 모두 일가인 동포이므로 국경의 구별은 무용지물”, “애국심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음을 논하는 목소리는 여기에서 나온다”<sup>14)</sup>는 등의 기술이 보이므로, 톨스토이의 급진적 사회개혁사상은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미 일본 지식계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 최초의 노동운동 기관지 『노동세계』(勞働世界)에 기고했던 시절부터 아베는 “사회당을 무정부당 혹은 허무당과 동일시하려는 데에 이르면 속단도 정도가 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파괴적 방면에서 그들은 쉽게 결합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지와 같은 건설적 방면에 이르면 그들은 도저히 일치할 수 없다. 동일시되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그 진의에 이르면 그저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빙탄지간(氷炭之間)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점이 있다”<sup>15)</sup>고 언급하여, 사회당이 폭렬탄이나 암살 등의 이미지가 강한 나로 드니키(허무당)나 무정부주의와는 다른 비폭력, 합법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에 기초한 친사회주의적인 주장은 사회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특히 유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톨스토이 옹의 논의 중에는 극렬 허무당도 심상치 않은 점도 많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격에 해당하는 점도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 주의의 공명정대함, 수단의 평화온당함에 정부는 그저 미간을 찌푸릴 뿐,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6)</sup>라고 서술한 로

14) 徳富蘆花(1897), 『トルストイ』(十二文豪 10), 民友社, p. 33.

15) 安部磯雄(1898), 『虚無党無政府党及び社会党』, 『労働世界』 5.

16) 徳富蘆花(1897), p. 38.

카의 전기도 원군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 초창기의 사회주의는 가타야마 센(片山潛, 1859~1933), 아베 이소오,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 1869~1937), 니시카와 고지로(西川光二郎, 1876~1940) 등과 같은 사람들의 기독교적인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톨스토이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더욱더 강해져 갔다. 여기에는 1901년의 사회민주당 결성에 참가한 유일한 비기독교도 멤버였다가 이윽고 초기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 갔던 고토쿠 슈스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토쿠는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 警醒社書店, 1901)에서 제국주의를 애국심과 군국주의가 결합한 형태로 보고 ‘세계적 대혁명운동’을 개시하여 제국주의에 ‘과학적 사회주의’와 ‘형제애의 세계주의’를 대치시킴으로써 극복해야 한다<sup>17)</sup>고 역설하였다.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 저서였는데, 그 서두에는 “전편의 주장은 구미의 식자들이 이미 고언하고 통어(通語)한 바이다. 그리하여 현재 톨스토이나 졸라나 존 멀리나 베벨이나 브라이언이 그 최고를 이룬다”<sup>18)</sup>고 하여 자신의 집필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 사회주의자도 아닌 톨스토이가 필두로 올라 있는 점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일본 초기 사회주의 역사에서 톨스토이의 수용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비기독교/유물론적 사회주의자들의 유기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양 날개를 가진 사회주의자들의 동거는,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외쳐지고 일본사회 전체가 주전론(主戰論)으로 기울어 갔을 때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며 논진을 펼쳤던 고토쿠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 등의 비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1903년에 결성된 평민사(平民社)로도 계승되어 갔다. 평민사에서 ‘일본 사회주의 유일의 기관 신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행

17) 幸徳秋水(2004), 山泉進 校注, 『帝國主義』, 岩波書店, p. 117.

18) 幸徳秋水(2004), p. 5.



된 주간 『평민신문』에는, 아베처럼 기독교적인 절대평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고토쿠처럼 맹자의 인정론(仁政論)에 기초한 반전평화론과 사회주의적인 반전론을 겸비한 논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반전평화론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창간호에 게재된 ‘평민사동인’의 「선언」(宣言)에도 평민주의(=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인종의 구별, 정체(政體)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를 철폐하고 전쟁을 금절하고자 한다”는 평화주의가 주창되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도 “국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폭력에 호소하여 한때 과거를 이루려는 행위 등은 절대로 부인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sup>19)</sup>

물론 맹자의 인정론에 기초한 유교적인 평화론을 전개한 이 신문의 기사에 “우리가 발칙하게도 평화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충군애국의 재조재야의 제 호걸은 혹은 이것으로 예수교 냄새나는 박래한 이단이라고 하여 하나같이 배척하려고 할 것이다”<sup>20)</sup>라고 전제를 두어야 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기독교도들이 중심이었다. 더욱이 당시의 미디어에서는 비전론을 주장한다고 하여 톨스토이와 평민사를 동일시했는데,<sup>21)</sup> 그것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네 글자에 톨스토이라고 방훈(傍訓)을 달려고 생각했었다”<sup>22)</sup>거나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의 흐름을 이어 비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보게 된다”<sup>23)</sup>는 등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평민사는 비전론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때까지 강단에만 머물러 있었던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현실 세력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사회에 등

19) 「宣言」, 『平民新聞』 1, 1903년 11월 15일.

20) 「孟子の國際觀」, 『平民新聞』 11, 1904년 1월 24일.

21) 山泉進(2005), 「平民社の非戰論とトルストイ: トルストイ『日露戰爭論』の反響」, 『帝國を撃て: 平民社100年國際シンポジウム』, 論創社.

22) 覆面論士, 「古今人物鑑(其九十)」, 『読売新聞』, 1904년 8월 8일.

23) 「トルストイ派歎革命黨歎」, 『革命評論』 6, 1906년 11월 25일.

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sup>24)</sup>은 사실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일본에서 전쟁에 반대했던 중심 사상이었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심화시키는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비전론을 대표하던 신문이었던 『요로즈 조보』(萬朝報)가 여론에 휩쓸려 주전론으로 전향했을 때 고토쿠 등과 함께 비전론을 주장하며 신문사를 떠난 사람 중에는 톨스토이에 영향을 받으며 무교회주의와 절대평화주의를 주창했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 같은 기독교 사상가도 있었다. 우치무라는 고토쿠의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에 서문을 써서 “자네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세상의 이른바 애국심이라는 것을 몹시 미워한다. 자네는 한 번도 해외의 자유국에서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사회주의자다.”<sup>25)</sup>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1903년에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발표했을 때는, 양자를 혼동하여 기독교를 위협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하며 사회주의와 명확히 구별하여 거리를 두고자 했다.<sup>26)</sup> 이것은 평민사 측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우치무라와 평민사의 비전론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 평민사는 “우치무라 군은 개인주의자로 한 개인의 영혼을 구하고 한 개인의 도덕만 나아지면 사회는 자연히 개량된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자는 사회의 조직제도 전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군은 개인을 본위로 해서 보고 평민신문은 사회를 본위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sup>27)</sup>라고 답변했다.

24) 木下尚江(1905), 「時事評論」, 『新紀元』 1.

25) 幸徳秋水(2004), p. 4.

26) 神沢惣一郎(1974), 「内村鑑三と社会主義」, 『早稲田商学』 247.

27) 「讀者と記者」, 『平民新聞』 27, 1904년 5월 15일.

### 3. 비전문을 둘러싼 톨스토이와 초기사회주의자들과의 대립: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톨스토이의 비전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초기 사회주의자들에게 수용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던 니시카와 고지로는 『사회주의』(社會主義, 『勞働世界』의 개제지)에서 톨스토이의 전쟁론을 1903년 초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니시카와는 우선 톨스토이가 전쟁의 원인으로 재산 분배의 불평등, 군인의 존재, 종교가와 교육가의 잘못된 교육의 세 가지를 들고, 전쟁의 폐지 방법으로서 정부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종교의 신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한 두호보르교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의 예를 들어, 양심의 명령만을 듣고 군대를 거부하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전쟁 폐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톨스토이 옹이 주장하는 전쟁 폐지 방법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인데, 나는 이 방법이 극히 존중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자이지만, 이 외에 사회주의 운동에 크게 희망을 걸고 있는 자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목적을 달성하여 재산의 불평등이 대지에서 없어지면, 군대가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질 터이므로 나는 톨스토이 옹의 주장을 듣고 그와 같이 하여 평화주의를 위해 진력하는 한편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통해 평화주의를 위해 진력할 생각입니다. …… 나는 오로지 위의 두 방법에 의해 전쟁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sup>28)</sup>

니시카와는 평민사 결사에도 참가했는데, 『평민신문』 창간호에는 니시카와가 톨스토이의 이 전쟁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비전문 강연회에서 소개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sup>29)</sup> 이처럼 초기의 평민사에서는 전쟁을

28) 白熊生(1903), 『トルストイの戦争論を読む』, 『社會主義』 11.

폐지하기 위한 ‘두 방법’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내면적인 완성과 종교성(도덕성) 회복에 기초한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사회의 시스템의 변혁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방향에서 보충해 가면서 톨스토이의 비전론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he London Times』(1904년 6월 27일자)에 실린 톨스토이의 러일전쟁론 「Count Tolstoy on the War: “Bethink Yourselves!”」의 번역 「톨스토이 옹의 러일전쟁론」(トルストイ翁の日露戦争論)이 『평민신문』 39호(1904년 8월 7일) 지상에 소개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톨스토이 전쟁론의 수용 양상은 이 신문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 필라델피아 『북미』(北米)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톨스토이가 언급한 “나는 러시아 편도 들지 않고 일본 편도 들지 않고 그저 그 정부 때문에 속아서 평화, 양심, 종교를 배반하고 전쟁을 하도록 강요당한 **양국 노동자의 편**이다”<sup>30)</sup>라는 발언을 소개하거나, 톨스토이가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 1857~1927)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마치 애국심에 선악의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애국심이 어떤 경우에 선하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한번 어떤 종류의 애국심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곧 가장 커다란 피해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이다. **애국심과 기독교는 양 극단**의 명칭으로 양자는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극동을 애국심에서 초래되는 모든 재해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인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될 것이다”<sup>31)</sup>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혹은 “이번 전쟁은 양국 인민의 전쟁이 아니라 황백 양 인종의 전쟁”이며 “문명국인 러시아의 승리는 인류의 이익이다”라는 한 프랑스 신문기자에 답하는 형식으로 문명론을 설파하는 톨스토이의 기사를 전하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나의 안중에 **인종의 구별은 없다**. 문제는 다만 인류가 이

29) 『非戰論講演会の記』, 『平民新聞』 1, 1903년 11월 15일.

30) 『トルストイ氏と戦争』, 『平民新聞』 25, 1904년 5월 1일.

31) 『トルストイ翁の手簡』, 『平民新聞』 27, 1904년 5월 15일.

전쟁으로 인해 무슨 이익되는 바가 있는가에 있다”고 답한 후에 “구주는 왜 문명이라고 하는가, 구주인은 기교에 능할 뿐, 철도, 전신, 전화를 발명했을 뿐, 단지 그것뿐이다. 내가 그것을 보면, 이 문명들은 진정한 오래된 문명의 발명이 아니라 야만의 발명일 뿐, 인간의 가장 열등한 욕정을 채울 뿐. 이 발명들은 추호도 인간의 도덕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폐해를 늘릴 뿐”, “노동을 소멸시키는 기계의 발명이라 해도 그저 인간의 욕정을 도발할 뿐이고 오히려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을 공격하고, 기차의 발명이 갑의 장소에서 을의 장소로 급속히 인간을 운반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인간의 숭고함은 노동에 있다** …… 일본인은 구주의 결점을 모방했다”고 서구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어느 쪽 국민의 승리가 인류에 도움이 될지를 예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던 기사를 『세계의 신문』란에서 소개하고 있다.<sup>32)</sup>

그런데 『톨스토이 옹의 러일전쟁론』이 『평민신문』에 소개되자, 일본 내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고토쿠 그룹 사이에 유지되었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토쿠와 사카이가 함께 번역한 이 글은 순식간에 8,000부가 팔렸고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sup>33)</sup> 『평민신문』 지면에는 『톨스토이 옹 전쟁론 중에 나타난 농부를 기리며 읊은 노래』라는 연작 와카(和歌)가 기고되기도 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글 말미에, 참전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면서 “징집을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절대로 일본인 가족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겠다”<sup>34)</sup>는 의지를 담은 편지를 톨스토이에게 보낸 한 농부를 소개한 것에 대한 독자의 응답이었다. “러시아인, 일본인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당신의 눈에 구별 있으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sup>35)</sup> 또한 『평민신문』

32) 『톨스토이氏の文明論』, 『平民新聞』 29, 1904년 5월 29일.

33) 톨스토이(1904), 平民社 訳, 『톨스토이の日露戦争論』, 文明堂.

34) 『톨스토이翁の日露戦争論』, 『平民新聞』 39, 1904년 8월 7일.

이나 사회주의 서적 등을 짐수레에 싣고 다니며 사회주의 전도 행상을 벌였던 야마구치 고켄(山口孤劍)도 이에 감동하여 「톨스토이」(トルストイ)라는 제목의 시를 기고하기도 했다.

실로 고귀한 십자가는/ 크루프 대포에 보호되고  
영취산의 사랑의 종/ 피의 정원에 전쟁을 외치는  
절규로 바뀌는 문명이여/ 인간은 짐승과 악수했네  
“아아 말세는 다가왔다”  
언어 차이, 피부 색깔/ 살육하고 살육당할 운명인가  
악마의 사전에 빛나도록/ ‘전쟁’이라는 이름을 불태우지 않을 텐가  
눈물의 씨실 날실로/ 짜낸 사랑의 글  
성스러운 하늘 불에 닿게 하라  
보라 북구의 가을 깊어/ 황혼 빛 열으니  
황무(黃霧) 자욱한 해안가/ 바위에 막힌 찬 물결이어  
채찍 휘두르며 흰수염의/ 노인은 높이 외치거늘  
“회개하라 인간이여”<sup>36)</sup>

그들은 톨스토이의 러일전쟁론에 대한 주전문자들의 공격에, “톨스토이에 대한 일본 논객의 의견은, 비전문은 러시아에는 적절하지만 일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귀착하는 대단히 편의적인 논법”<sup>37)</sup>이라고 비판하며 공동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정작 번역자인 고토쿠 자신은 “나는 본래 옹이 전쟁의 죄악, 해독 및 그로부터 생기는 일반사회의 위험을 절절히 충고하는 것을 보고 감탄과 승경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쟁의 원인과 폐지의 방법을 둘러싸고 긍정만 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다음 호에 「톨스토이 옹의 비전문을 평한다」(トルストイ翁の非戦論を評

35) 星山安(1904), 「ト翁戦争論に現はれたる一農夫をしぬびて詠める歌」, 『平民新聞』 43.

36) 孤劍(1904), 「トルストイ」, 『平民新聞』 56.

37) 「ト翁と日本の論壇」, 『平民新聞』 40, 1904년 8월 14일.

す)라는 사실을 써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웅은)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진정한 종교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하여 신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단지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비전론을 외치는 것은 그 구제 방법과 목적이 이와 같이 망막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점에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실제의 기획을 가진다. 내 소견에 따르면 지금의 국제전쟁은 톨스토이 웅이 말한 바와 같이 단지 사람들이 예수의 교리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로 열국 경제적 경쟁의 격심함에 있다. 그리고 열국 경제적 경쟁의 격심함은 현재의 사회조직이 자본가 제도를 그 기초로 삼는 데에 있다. 고로 장래에 국제간 전쟁을 절멸시켜 그 참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자본가 제도를 전복시켜 사회주의적 제도로 이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적 제도가 한번 확립되어 만민이 평등하게 그 생을 다하기에 이르면 그들은 무엇이 괴로워 비참한 전쟁을 재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데도 요컨대 톨스토이 웅은 전쟁의 원인을 개인의 타락에 돌린다. 고로 회개하라고 가르쳐서 그것을 구하고자 한다. 나의 사회주의는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경쟁에 돌린다. 고로 경제적 경쟁을 폐기하여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전혀 웅을 따를 수 없는 이유이다.<sup>38)</sup>

이와 같은 비판은 레닌에 의한 톨스토이 비판, 즉 “위기의 원인 및 탈출 수단에 대한 물이해”<sup>39)</sup>와 통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는 톨스토이에 대한 이해이기도 했다. 평민사의 입장에서 본

38) 幸徳秋水(1904), 『トルストイ翁の非戦論を評す』, 『平民新聞』 40.

39) ニコライ・レーニン(1928), p. 89.

다면, 같이 비전론을 주장하던 우치무라 간조에 대한 비판을 톨스토이에게도 적용시킨 것이 된다. 단행본으로 발매된 『톨스토이의 리얼전쟁론』에도 책 말미에 고토쿠의 이 사실이 첨부되어 있었다.<sup>40)</sup>

하지만, 『평민신문』에 실린 고토쿠의 이 사실 바로 아래 단 지면에는 「일본에서의 톨스토이의 영향」(The Influence of Tolstoi in Japan)이라는 영문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 톨스토이의 비전론에 대해 고토쿠와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학자나 종교가로서의 톨스토이의 사명은 아마도 반군국주의의 그것만큼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현재 일본인의 눈에 비친 그의 이미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대담하게 그의 원리를 선언하는 무저항주의의 거대한 화신으로 비친다. …… 러시아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목도하느니 만주를 잃는 것이 더 낫다. 러시아 정부가 톨스토이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전쟁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정부 같이 전제적인 정부가 톨스토이에게 관대하다면, 더 세련되고 입헌적인 척 하는 일본 정부가 사회주의자들에게 관대한 자세를 취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41)</sup>

이 영문 기사는,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는 일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본의 사회주의자들과 톨스토이가 유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평민신문』 영문란을 담당한 것은 아베 이소오였다. 평민사의 동지들은 아베의 명의로 톨스토이에게 신문을 보냈는데, 거의 1년 후에 톨스토이한테서 “친애하는 친구 아베 이소오에게”로 시작되는

40) トルストイ(1904), pp. 59-63.

41) 「The Influence of Tolstoi in Japan」, 『平民新聞』 40, 1904년 8월 14일.



답장이 도착해서, 그 전문이 『직언』(直言)에 번역 게재되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나는 일본에서 친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공동 활동가를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기쁨을 누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자네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일본의 혜경(慧敬)하고 정력 넘치는 인민의 가장 진보한 부분이 이런 취약하고 공상적인데다가 오류투성이의 사회주의를 구주에서 들어온 것을 슬퍼한다. 구주에서는 사회주의는 이제 이미 유기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 성정의 가장 천박한 부분의 만족(즉 그 물질적인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행복은 결코 그 창도하는 수단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이며 도덕적이고, 그 안에 물질적인 행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고상한 목적은 국민 및 인간을 조직한 일체 단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완성에 의해서만 도달된다. 종교라고 하면, 나는 인간 일체에 통하는 신의 법칙에 대한 합리적 신앙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은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바를 행하는 데에 있다. 이 법은 사회주의 및 기타의 취약한 모든 주의에 비해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유일한 진법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오류투성이(게다가 도저히 그 목적에 달할 수 없는)의 모든 주의를 드러내려는 모든 운동은 이 유일한 진법의 사용을 방해하고, 현재 정당한 인류와 각 개인의 행복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sup>42)</sup>

그런데 이 답장에 대해서는 “옹과 같은 위인이 여전히 사회주의 및 사회문제 해석법에 대해 천박한 일반인과 같은 오해에 빠진 것을 보고 깊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sup>43)</sup>는 서두의 소개 글이 달려 있어 상호간에

42) 톨스토이(1905), 『톨스토이翁의返書』, 『直言』 30.

43) 톨스토이(1905).

서로의 사상을 ‘천박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톨스토이의 러일전쟁론 수용을 둘러싸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균열이 계속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톨스토이는 혁명가들에게 삶의 이상을 제시한 모범적인 실천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음은 고토쿠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분명하다. 사카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토쿠는 “출옥 후의 욕망”을 네 가지 열거하는 중에 “홋카이도 혹은 조선에 전원을 사서 수백 명의 농부와 이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하늘의 진리를 양성하”<sup>44)</sup>는 것을 네 번째 욕망으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에 대한 무지나 경제적 침략행위에 대한 무자각이 의도치 않게 노정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sup>45)</sup> 톨스토이주의자들이 ‘문화적인 신앙공동체’(культурные скиты)라 불리는 콜로니를 건설한 것과 유사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분도 읽어낼 수 있겠다. 톨스토이는 여전히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이기도 했으며, 평민사에서 발행한 톨스토이 그림엽서는 여전히 인기를 모았다.<sup>46)</sup>

#### 4. 제1차 러시아혁명과 톨스토이의 혁명론을 둘러싸고: 무저항주의와 혁명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톨스토이주의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초래한 또 하나의 핵심 주장은 톨스토이가 내세운 무저항주의였다. 레닌

44) 幸徳秋水(1905), 『巢鴨だより』, 『直言』 22.

45) 石坂浩一(1993), 『近代日本の社会主義と朝鮮』, 社会評論社, p. 33.

46) 당시 평민사는 1주년 기념으로 “명사 초상 평민사 그림엽서”라는 이름으로 히라후쿠 하쿠스이(平福百穂)가 도안한 마르크스, 엥겔스, 라살레, 베벨, 톨스토이, 크로포트킨의 초상 엽서(1세트 6매)를 판매하고 있었다.

은 톨스토이 탄생 80주년(1908)을 맞아 패배한 혁명을 돌아보며 쓴 톨스토이론에서 이것을 “악에 대한 무저항”이라 부르고 “첫 번째 혁명전 패배의 가장 중대한 원인”<sup>47)</sup>으로까지 꼽았는데, 일본의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에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 분열은 고토쿠 슈스이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직접행동론’으로 기울어 갔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다만, 러일전쟁 이후 정부의 탄압 등으로 1905년 1월에 주간 『평민신문』이 폐간된 이후에는, 평민사의 후속 기관지 『직언』(直言, 1904년 1월~1905년 9월), 이를 계승하여 유물론적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히카리』(光, 1905년 11월~1906년 12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발행한 『신기원』(新紀元, 1905년 11월~1906년 11월) 등의 미디어에 톨스토이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전쟁이 끝나고 비전론의 역할도 종료되면서 평화론에 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 『신기원』만이 주로 이슈화해 갔다. 하지만, 이들도 이전만큼은 톨스토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신기원』도 “사회주의는 물질적 기독교”이고 “기독교는 정신적 사회주의”라고 하여,<sup>48)</sup>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상을 동일시했던 것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러일전쟁기에 비전론에 기초한 러시아 혁명가들과 초기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연대적 관계는 러시아혁명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재정립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자유민권 좌파에 뿌리를 둔 유물론적 사회주의자들을 대표했던 고토쿠 그룹과, 뒤에서 언급하는 혁명평론사 동인들이었다.

고토쿠 그룹은 재미의 러시아 동지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직접 소개 받거나 하면서 러시아혁명 발발의 계기를 만들었던 사회혁명당의 암살 활동 등을 포함해서 혁명의 진행 상황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

47) 레닌(1928), p. 9.

48) 『新紀元チラシ』, 『新紀元』 10, 1906년 8월.

다.<sup>49)</sup> 고토쿠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표권이나 총파업 등을 무기로 하는 경제상의 혁명 못지않게 폭력을 사용하는 정치상의 혁명이 중요한데, 러시아혁명에서는 암살수단보다는 총파업이 훨씬 공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폭압적 전제정치 아래에서는 이 두 혁명운동이 동시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sup>50)</sup> 그런데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억압당하는 전후 일본의 상황 속에서 사민주의적 사상과 보통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적 합법주의 운동방침에 회의하면서 그들은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의 현실을 차츰 러시아의 상황과 겹쳐 가기 시작했다. 러시아혁명을 지켜본 후의 고토쿠 그룹은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상호부조에 기초한 무정부공산주의 사상과 직접행동으로 사상적으로 전환해 간다. 물론 톨스토이도 병역 거부나 납세 거부 등과 같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강조했고, 고토쿠가 직접행동으로 상정했던 것도 생디칼리즘이 강조했던 총파업이기는 했다. 하지만, 초기의 직접행동은 전투성의 상징으로 혁명적 폭력과 연결되기도 했으며,<sup>51)</sup> 그러한 의미에서 아나키즘의 ‘행동을 통한 선전선동’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을 한편에 두었을 때, 초기사회주의자들의 톨스토이 수용의 변화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바로 쑨원(孫文, 1866~1925), 송자오런(宋教仁, 1882~1913) 등이 1905년에 조직한 중국혁명동맹회에 참가했던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 1871~1922), 가야노 나가토모(萱野長知, 1873~1947), 이케 고키치(池亨吉, 1873~1954) 등의 일본인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혁명을 돕고 양자를 연결하기 위해 1906년 9월에 창간한 『혁명평론』(革命評論)이 그것이다. 이들은 세계평화와 문명의

49) 飛鳥井雅道(1967)

50) 幸徳秋水(1905), 『露国革命が與ふる教訓』, 『直言』 2-3.

51) 에이프릴 카터(2007), 조효제 역,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pp. 46-52.

달성을 위해서는 이 양대 전제 무단 국가에서 혁명을 일으켜 그 정체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인식에 기초하여,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중국동맹회의 기관지 『민보』(民報)와의 연계 속에서 러시아혁명을 주축으로 한 세계 혁명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여 혁명주의를 고취하고자 했다.<sup>52)</sup> 이에 대해서는 고토쿠 슈스이도 “한 번에 다 읽었는데 통쾌함이 비할 바 없어 깊이 감사드린다. 전편에 혁명의 기운과 운동 상황을 유감 없이 보도했다”는 감상을 남겼고,<sup>53)</sup> 『신기원』도 “러일전쟁은 끝났다. 러시아혁명은 시작되었다. ‘혁명’의 경종은 세계의 동포를 성파(醒破)하여 피와 불을 바라게 한다. 『혁명평론』이 태어난 것은 당연한 기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논평을 냈다.<sup>54)</sup>

그런데 혁명평론사 동인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테러리즘을 채용하는 것은 공통된 주장”<sup>55)</sup>이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그 괴리가 표명된 것은, “자기의 면전에서 백발 노모가 학살된 한 유태인 청년”이 “톨스토이파를 부정하고 혁명당이 되었다”는 런던 데일리 뉴스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며, “아아, 당당한 개종이구나. 생각건대 오늘날의 러시아와 같은 국정에 처하여 무턱대고 무저항의 도덕을 설파하는 것은 범죄적인 어리석음(criminal stupidity)”이라고까지 쓴 기사<sup>56)</sup>일 것이다.

다만, 『혁명평론』에 모인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분석과 비판 및 그에 입각한 변혁의 구상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57)</sup> 그런 탓에 고토쿠

52) 労働運動史研究会 編(1962), 『解説』, 『東京社会新聞・革命評論』(明治社会主義史料集 8), 明治文献資料刊行会.

53) 『飛雁紛々』, 『革命評論』 2, 1906년 9월 20일.

54) 『飛雁紛々』, 『革命評論』 5, 1906년 11월 10일.

55) 労働運動史研究会 編(1962).

56) 『トルストイ派歎革命党歎』, 『革命評論』 6, 1906년 11월 25일.

57) 1906년 일본사회당 창립에 참가했던 요시카와 모리쿠니(吉川守圀)가 집필한 『荊逆星霜史: 日本社会主義運動側面史』(不二屋書房, 1936)에는 『혁명평론』에 대해 “일

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잡지에 성원을 보내는 한편으로 “우리가 그것(혁명)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의 이의(理義)를 기회 있을 때 설명하신다면 금상첨화일 것”<sup>58)</sup>이라는 첨언을 했던 것이다. 그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이, 중간에 동인으로 참가한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가 집필한 『자살과 암살』(自殺と暗殺)이다. 이 기사에는 러일전쟁 이후에 변민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일본의 역사는 황실의 역사로 만세일계 천지와 함께 무궁하고 국민은 모두 빠짐없이 존왕충군의 신민일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보고 크롬웰의 시해를 읽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마음이 들떠 멋대로 비교연구를 하여, 마침내 똑같이 자기의 주권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한 후에, “변민적 자살자가 일변하여 혁명적 암살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를 부정, 조세의 거절, 징병의 준거(峻拒)”를 주장하는 “톨스토이의 이름을 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sup>59)</sup> 결국 톨스토이의 비전론은 좋지만, 일본의 비전론은 안 된다고 했던 주전론자들<sup>60)</sup>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의 불복종 사상은 전제 무단국 러시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본에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혁명평론』 자체는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와의 인맥적인 연결도 있었다. 톨스토이는 그중에서도 도텐의 형인 미야자키 다미조(宮崎民蔵, 1865~1928)가 추진했던 토지 평등 향유 복권 운동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톨스토이는 당시에 집필했던 『러시아혁명의 의미』(O

---

본의 문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로 지나혁명을 목표로 한” 점에서 “아무래도 어쩐지 조금 부족한 곳이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58) 『飛雁紛々』, 『革命評論』 2, 1906년 9월 20일.

59) 外柔(1906), 『自殺と暗殺』, 『革命評論』 6.

60) 『卜翁と日本の論壇』, 『平民新聞』 40, 1904년 8월 14일.

значении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Посредник, 1906)<sup>61)</sup>를 그의 대리자인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Vladimir Grigoryevich Chertkov, 1854~1936)를 통해 일본에 소개하고자 했다. 이것은 러시아혁명의 의미와 혁명의 외중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설파한 논문이다. 체르트코프는 『혁명평론』 기자 앞으로 논문과 “톨스토이는 귀 신문을 통독하고 그 사상이 자신의 사상과 동일한 것임을 발견하고 귀 신문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sup>62)</sup>를 보내서 번역 출판을 의뢰했다. 『혁명평론』 관계자들은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러시아 혁명의 의의』(露国革命の意義)의 출판 예고를 수차례 내기도 했다.<sup>63)</sup>

하지만, 실제로 원본이 『민권의 귀취』(民權之歸趣, 好友社, 1908)라는 제목을 달고 와다 사부로(和田三郎)와 이케 고키치의 번역으로 전 17장 중 전반부 8장만으로 된 역서로 일본에서 출판된 것은 1908년의 일이다. 번역자의 「서언」에는 타이틀을 바꾼 이유로 원서를 통독해 본 결과 가장 선명한 인상을 받은 논지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자신들은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sup>64)</sup>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 한층 강화되어 『혁명평론』도 1907년 3월에 제10호로 폐간되어 버린 것과 번역자 중 한 명인 이케가 중국혁명에 참가한 것이 영향을 비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제8장까지의 부분과 번역되지 않았던 후반부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위협시켰거나 혹은 무시했던 톨스토이 사

61) 초판은 압수되었으나, 곧바로 영어판으로 번역되었다(The meaning of the Russian Revolution). 그 후 1907년에 러시아의 출판사 Врублевского에서 다시 러어판이 간행되었다.

62) 「トルストイ伯代理者の手翰」, 『革命評論』 9, 1907년 2월 25일.

63) 「予告」, 『革命評論』 9・10, 1907년 2월 25일・3월 25일.

64) レオ・トルストイ(1908), 和田三郎・池亨吉 共訳, 『民權之歸趣』, 好友社.

상의 한 측면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제8장까지의 전반부는 권력의 속성에 관한 것이다. 권력이란 폭력에 기초한 것이며, 러시아의 비노동계급은 권력과 투쟁을 통해 인민 다수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제도를 만드는, 이른바 서구식 혁명을 지향한다. 그러나 권력이 폭력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이상, 그 체제의 타락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인은 서양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에 해당한다. 한편, 제9장부터 제17장까지는 그렇다면 러시아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술된 부분이다. 거기에는 권력에 대한 의식적인 불복종을 철저히 하고 서양 물질문명을 부정하고 농경공동체로 돌아가 진정한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차르 권력의 전복이 아니라 철저한 불복종을 설파하는 것에 핵심이 있지만, 톨스토이의 무저항이나 불복종의 혁명사상은 일본에는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본서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읽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초기사회주의의 주류파였던 고토쿠 그룹은 러시아혁명의 학습 등을 통해 이미 사회혁명당과 같은 러시아 혁명세력의 직접행동 노선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톨스토이와의 거리는 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독일 사민당의 보선운동에 기초한 의회정책 노선의 취약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강권적인 군사국이 일본에서는 전제정권에 맞서 경제적 혁명과 정치적 혁명의 양쪽을 수행하는 러시아혁명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점차 주장해 가게 된다. 톨스토이주의가 러시아 국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혁명평론』의 비판은, 고토쿠 그룹처럼 러시아의 국정과 일본의 국정을 겹쳐 볼 때에 유효한 견해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고 안으로는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제거하며 ‘겨울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일본에서는 탄압의 광풍만이 휘몰아쳤을 뿐, 이에 맞서는 혁명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

한편, 레닌은 러시아혁명의 실패를 돌아보며, 톨스토이 작품들의 사상적 내용은, 관권적 교회도 지주도 지주적 정부도 철저히 소탕하고 모든



낡은 형태와 토지소유제도를 절멸시켜, 토지를 해방하고 경찰적 계급국가 대신에 자유롭고 동류의 소농민 공동체사회를 창건하려는 농민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동체사회의 신행태는 차르 권력의 강제 전복이 필수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톨스토이적 절제, 정치에 대한 톨스토이적 부정, 그에 대한 흥미와 이해의 결여”와 “악에 대한 무저항”은 조직화된 혁명적 투쟁을 거부하여 혁명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파악했다.<sup>65)</sup> 레닌에게는 이와 같은 “절규적 모순”을 노정 한 전형적인 농민혁명가로서의 톨스토이 사상의 약점, 결함이 러시아혁명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비친 결과일 것이다. 이것이 톨스토이 탄생 80주년 기념행사에 “위대한 구도자”를 칭송하는 주류적인 흐름을 굳이 거스르며 레닌이 러시아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톨스토이를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1928년의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즈음해서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Правда)에 발표된 「톨스토이에 관한 테제」는 레닌의 톨스토이 비판을 기초로 톨스토이의 역사적 의의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톨스토이는 현대의 모든 병폐(국가, 교회, 자본주의, 군국주의, 내셔널리즘 등에 관한)에 대해 과감한 문제제기를 했다. 둘째, 이에 대해 혁명과 의회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반동적이고 공상적인 무저항주의를 주장했다. 셋째, 전체적으로 유해한 톨스토이의 사상은 부르주아혁명 도래기에 농민부르주아혁명의 특수성을 표현했다. 넷째, 톨스토이는 창작에서 가부장적이고 피동적인 농민대중을 이상화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작가로서 긍정적인 문학적 유산을 남겼다.<sup>66)</sup>

이 테제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첫째 의의에 열광하고 둘째 의의에 실망한 후, 톨스토이의 사회주의적 전유를 포기했다

65) 레닌(1928), p. 8.

66) ソウエート中央芸術局(1928), 「トルストイに関するテーゼ」, 国際文化研究会 訳(1928).

고 할 수 있다. 그 최대 이유는 당시 일본의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5. 톨스토이의 죽음과 초기사회주의의 종언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 20일에 타계했다. 같은 해 5월 25일에 다수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의 체포, 검거로 시작되어 1911년 1월에 고토 쿠를 비롯한 12명의 처형으로 이어진 대역사건이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혹독한 압박과 침묵을 강요했던 ‘겨울의 시대’의 도래를 고했던 시간들과 정확히 겹친다. 그 때문에, 초기사회주의자들 중에서는 러일전쟁과 러시아혁명 전후의 톨스토이와 교류했던 자신들의 운동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톨스토이의 추도 특집을 기획한 잡지들도 별로 없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번역이나 집필 등으로 톨스토이의 일본 수용에 관여했던 도쿠토미 로카,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노보리 쇼무(昇曙夢), 이시카와 잔게쓰(石川残月) 등을 포함한 9명의 추도문을 「위인 톨스토이」(偉人トルスト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학생문예』(学生文藝)이다. 추도문들은 대문호 톨스토이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글과 톨스토이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판에 무게가 실린 글로 대별된다. 후자의 예를 먼저 보면, 번역가인 이시카와 잔게쓰는 톨스토이는 “정의를 위해 살았던 인물로, 그가 남긴 귀감은 영원히 불멸”한다고 하면서도 그 계승을 위해서는 위인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결점도 알아야 한다며, “톨스토이가 포회(抱懷)한 극단적인 무정부, 무국가주의도 세상의 수많은 사상이 천박한 무리들의 흥중에 자리잡아, 그 오해는 결국 국가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sup>67)</sup> 다카하시 고로(高橋五郎) 또한 톨스토이가 “전쟁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전쟁이란 인간으로 치면 흡사 암

과 같은 것으로, 잘 드는 칼로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요컨대 응용의 묘라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다.<sup>68)</sup> 어느 것도 당시 대역사건이라는 반국가주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통해 제국주의화를 완성하려 했던 메이지 일본의 노선에 추종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가 하면, 전자의 경우는 우치다 로안이나 노보리 쇼무처럼 톨스토이를 석가나 예수와 같은 위대한 성인, 현인으로 묘사하는 추도문이 있는 한편으로, 로카나 가네코 치쿠스이(金子筑水), 나카자토 가이잔(中里介山)은 톨스토이를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분투한 위인으로 그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로카나 치쿠스이는 톨스토이가 귀족적이고 번잡한 생활과 공산적인 이상, 혹은 무아의 경지 사이에서 번민 끝에 가출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상을 실천에 옮긴 것을 강조했다.<sup>69)</sup> 가이잔 또한 톨스토이는 “근대의 모순이나 상처, 현실에서의 고뇌를 스스로 대표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완전히 무저항주의에서 왔으며”, 톨스토이는 “폭력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반칙으로” 여기고, 그 모순 속에서 분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한 점이 색다르다. 더욱이 가이잔은 글 말미에 “톨스토이는 러시아에게는 커다란 구적(仇敵)이었으며 톨스토이 자신도 적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러시아의 자랑’을 잃었다며 크게 슬퍼했다고 한다. 아량이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인다.<sup>70)</sup> 이 추도 특집이 대역사건으로 고토쿠 슈스이 등이 처형당한 직후에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평민신문』에 기고하며 초기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가이잔이 당국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의 잔

67) 石川残月(1911), 「杜伯と其事業」, 『学生文藝』 2-2, 聚精堂.

68) 高橋五郎(1911), 「狂的哲人」, 『学生文藝』 2-2, 聚精堂.

69) 徳富蘆花(1911), 「面白のお爺さん」, 『学生文藝』 2-2; 金子筑水(1911), 「晩近思想界の最強者」, 『学生文藝』 2-2, 聚精堂.

70) 中里介山(1911), 「奮闘の人」, 『学生文藝』 2-2, 聚精堂.

혹함을 던지시나마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 사상에 공명하며 별다른 갈등 없이 독자적으로 전유한 것으로 보이는 우치무라 간조도 자신이 주필을 담당했던 성서 잡지 『성서 연구』(聖書之研究) 1910년 12월호에 짝막한 추도문을 남겼다. 그는 “옹이 싫어하던 것이 둘 있었다. 그 하나는 전쟁이었다. 다른 하나는 교회였다. 그는 전쟁을 싫어했기 때문에 전쟁을 도운 교회를 싫어했던 것이다. …… 교회는 톨스토이를 파문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파문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파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교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무교회주의의 실천과 반전평화의 신념을 톨스토이의 계보 위에 놓았다.<sup>71)</sup> 하지만, 톨스토이가 교회와 유착하여 폭력을 요구하는 기관으로 철저한 불복종의 대상으로 여겼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그가 1907년 시점에서 “기독교와 비슷하면서 가장 그것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외쳐지고 있는 사회주의”인데, 거기에는 “경건이 없다. 순종이 없다. 평화가 없다. 이는 다만 불평과 반항과 파괴의 정신이다”라고 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층 명확히 가하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sup>72)</sup>

한편, 톨스토이의 모순에 주목해 왔던 레닌도 『소치알 데모크랏』(Социал-Демократ)에 새로이 『톨스토이론』(Л.Н. Толстой)이라는 짧은 추도문을 발표했다.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톨스토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는 글이었다. 우선 레닌은 러시아혁명을 부르주아 농민혁명으로 파악하고 톨스토이의 세계적 의의는 러시아혁명의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 톨스토이가 주장한 국가, 교회, 토지사유재산, 자본주의 등에 대한 비판에는, 이미 “원시적인 농민 민주주의”나 “가부장제적 농민”의 이상을 반영하는 정치 부정설이나 도덕적 자기완성설, 신앙생활 찬미를 내세우는 “과거에 속하는 것”과, 러시아의 프롤레타리

71) 内村鑑三(1975), 『内村鑑三全集』 제3권, 雪友社, pp. 535-536.

72) 内村鑑三(1975), p. 516.

아트가 천명하는 전제나 지주적 토지영유제에 타격을 가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신사회를 창조하는, 사회주의적인 투사에 협력하는 미래에 속하는 것”의 두 방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른바 지양의 과정을 거쳐 후자로부터 톨스토이주의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를 발견하고자 했다.<sup>73)</sup> 이와 같은 이해는 이윽고 소련 사회의 톨스토이 수용의 기반이 되었다. 톨스토이의 대리인이었던 체르트코프가 전개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 도입 촉구도 1919년 1월에 승인되어 소련은 세계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체르트코프는 붉은 군대의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톨스토이 전집의 편찬에 진력하게 된다.<sup>74)</sup>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역사건으로 톨스토이주의의 급진적인 부분, 즉 레닌이 말하는 ‘미래에 속하는 것’의 수용도 일단의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 대신에 높은 도덕성, 정신성에 기초한 온건한 개인주의, 인도주의의 부분이 부각되고 위대한 문호나 성인, 현인으로서의 수용으로 한정되어, 인생론의 형태로 널리 수용되어 갔다. 서두의 장지락이 품속에 지니며 자주 꺼내보던 그 인생론이다. 이로써 반문명과 반국가 사상, 반전론이 소거되고 인격수양이나 개량화된 기독교적 윤리가 강조되어 근대적 국가주의의 지배 담론에 종속된 톨스토이 사상이 조선에 소개될 토양도 정비된 것이다.<sup>75)</sup> 조선에서 톨스토이 소개의 선두에 섰던 최남선도 『少年』지에 톨스토이 서거 특집호를 꾸려 8·5조 288행에 이르는 장편 추도시<sup>76)</sup>와 함께 톨스토이 서거 추도문을 재빨리 게재했다. 거기에서 톨스토

73) В.И. Ленин (1910), Л.Н. Толстой, *Социал-Демократ*, No. 18. 인용은 니콜라이·레닌(1928).

74)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E. И. Гетель (1997), “Объединенный совет религиозных общин и групп как одно из проявлений русского пацифизма”, *Долгий путь российского пацифизма*, M., ИВИ РАН, pp. 301-320.

75) 박노자(2007),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pp. 69-76.

76) 최남선(1910), 「톨스토이先生을 뜻함」, 『少年』 3-9(최남선(1973), 『六堂崔南善全集』

이는 다수 인민의 생애를 접하고 “세바스토폴의 勇士” “文壇의 新驍將” 등의 명성을 버리고 참회를 통해 예수나 소크라테스처럼 번뇌에서 해탈한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이자, 현대 문명을 기탄없이 비평한 선지자로 그려졌다. 물론 톨스토이가 현대 문명이 비참한 원인을 국가와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극력 반항한 정신적 무정부주의자라는 기술도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상 실현 방법의 온건함을 내세워 극렬한 이미지를 떨쳐내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sup>77)</sup> 그런 의미에서 최남선의 톨스토이 이해는 특히 우치다 로안이나 노보리 쇼무 등의 수용방식에 근사하며,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톨스토이 전유 과정은 거의 참조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운동가로서의 톨스토이 이미지가 일본에서 다시 부활한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사회에 의해 톨스토이가 적극적으로 평가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

5, 玄岩社, pp. 402-406).

77) 최남선(1910), 『톨스토이 小傳』, 『少年』 3-9(최남선(1973), 『六堂崔南善全集』 10, 玄岩社, pp. 62-74).

## 참고문헌

### 【자 료】

内村鑑三(1975), 『内村鑑三全集』 제3권, 雪友社.

남 웨일즈·김산(2005), 송영인 옮김, 『아리랑: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개정3판), 동녘.

최남선(1973), 『六堂崔南善全集』 10, 玄岩社.

\_\_\_\_\_(1973), 『六堂崔南善全集』 5, 玄岩社.

国際文化研究会 訳(1928), 『マルクス主義者の見たトルストイ』, 叢文閣.

労働運動史料委員会 編(1960), 『労働世界』, 労働運動史料刊行委員会.

労働運動史料研究会 編(1963), 『社会主義』(明治社会主義史料集 補遺5~7), 明治文献資料刊行会.

\_\_\_\_\_(1962), 『東京社会新聞・革命評論』(明治社会主義史料集 8), 明治文献資料刊行会.

\_\_\_\_\_(1962), 『週刊平民新聞』(明治社会主義史料集 別册3~4), 明治文献資料刊行会.

\_\_\_\_\_(1961), 『新紀元』(明治社会主義史料集 3), 明治文献資料刊行会.

\_\_\_\_\_(1960), 『直言』(明治社会主義史料集 1), 明治文献資料刊行会.

徳富蘆花(1897), 『トルストイ』(十二文豪10), 民友社.

平民社 訳(1904), 『トルストイの日露戦争論』, 文明堂.

聚精堂(1911), 『学生文艺』 2-2, 聚精堂.

幸徳秋水(2004), 山泉進 校注, 『帝国主義』, 岩波書店.

トルストイ(1933), 八住利雄 訳, 『人生読本』 1~4, 春秋社.

ニコライ・レーニン(1928), 『トルストイ論』, 『文艺戦線』 5-8.

レオ・トルストイ(1908), 和田三郎・池亨吉 共訳, 『民権之帰趣』, 好友社.

Ленин, В.И. (1908), Лев Толстой как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Пролетарий 35.

Ленин, В.И. (1910), Л.Н. Толстой, Социал-Демократ 18.

【논 저】

박노자(2007),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에이프릴 카터(2007), 조효제 역,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吉川守圀(1936), 『荊逆星霜史: 日本社会主義運動側面史』, 不二屋書房.

柳富子(1998), 『トルストイと日本』, 早稲田大学出版部.

梅森直之 編著(2005), 『帝国を撃て: 平民社100年国際シンポジウム』, 論創社.

飛鳥井雅道(1967), 『ロシア第一次革命と幸徳秋水』, 『思想』 520, 岩波書店.

石坂浩一(1993), 『近代日本の社会主義と朝鮮』, 社会評論社.

神沢惣一郎(1974), 『内村鑑三と社会主義』, 『早稲田商学』 247, 早稲田商学同攻会.

Е. И. Гетель (1997), “Объединенный совет религиозных общин и групп как одно из проявлений русского пацифизма”, *Долгий путь российского пацифизма*, М., ИВИ РАН.

원고 접수일: 2015년 1월 2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ABSTRACT

---

## Reception of Tolstoy by the Japanese Revolutionaries before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Lim Kyoungwa\*

In this article, I will shed light on the reception of Tolstoy by Japan's early socialists while having in my mind the chronologically overlapping criticisms against Tolstoy made by Lenin. At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ovement in Japan, Tolstoy's seemingly pro-socialist stance based on absolute pacifism was instrumental in making the image of a socialist party striving to obtain the opportunities for legal activity. The socialist anti-war position was also seen as "Tolstoyist". However, as soon as Tolstoy's criticisms of the Russo-Japanese War became known in Japan, the local socialists could not help sensing serious limitations in the possibilities for the realization of basic societal reforms and social justice inside the Tolstoyist framework of society's rebuilding based on the revival of personal religiosity. The same skeptical attitude can be seen in Lenin's criticism of Tolstoy. Following the course of Russia's 1905-07 revolution, Tolstoy's "non-resistance" became a target of criticisms as well. Concomitantly, Kōtoku's group evolved into anarchists

---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the Russian revolutionary events, and embraced anarchic communism and the method of direct actions. Lenin, at the same historical moment, found a reason for the 1905-07 Revolution's defeat in the peasant "non-resistance" articulated by Tolstoy. However, Lenin also found that "Tolstoyism", together with negative features typical for peasant dissenters, exhibited such a positive quality as willingness to build a socialist society free from exploitation. The latter was to be considered to be Tolstoy's historical contribution. In Japan, however, as revolutionaries were cruelly suppressed during and after the "High Treason" trials of 1911, Tolstoy's radicalism was now to be hidden away from the public's eyes.